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A Study on the stressor, frequency of the stressor,
level of the stress perceived by children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신 은 영

교 수 김 경 연

Dept. of Home Managem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Eun Young Shin

Professor : Kyeong Yeon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stressor, frequency of the stressor, level of the stress perceived by children in Korea. The subject were 417 children of 80 second graders, 117 third graders, 111 fourth graders and 109 fifth graders selected from three elementary schools in Pusan(214 male and 203 female).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70-item stress scale for children and demographic questions was used for mother.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ANOVA, and t-test.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Events receiving the highest ratings for magnitude of badness were mainly family related (parents separating; grand parents getting sick/dying; parents getting sick).
2. Events receiving the highest ratings for frequency of occurrence were test, fighting with siblings, being picked on by other kids, staying home alone.
3. There appear significant differences for children's perception of stress due to the grade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1. 서론

1. 문제제기

아동기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기로 자주 이상화되곤 했다. 하지만 Elkind(1981)는 현대의 아동을 쫓기는 세대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종과 기술 집약적인 전문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는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아동에게 습득해야 할 지식과 정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가족구조, 생활양식의 급변, 개성이 무시되고 획일화가 강조되는 학교환경도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동기의 이러한 스트레스 경험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감정적 발달에 누적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잠재력을 상실케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Rakow, 1987; Glaser, 1982). 실제로 Honing(1986)은 일상생활에서 장기간 겪게 되는 만성적 스트레스의 효과는 정서적 결함이 없는 아동에게도 심리적 손상을 주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Allen은 반복되는 스트레스 경험이 아동의 심리적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아동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과잉평가하는 인지적 실수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Turkington, 1983).

스트레스적 경험이 아동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다루거나 또는 발달적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다룬 국내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 사건을 평가하는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을 직접 조사하는 어려움 때문에 아동의 스트레스 사건 평가자로서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Coddington, 1972; Chandler, 1981; Monaghan, Robinson & Dodge, 1979; Jacobs & Charles, 1980; 강성희, 이재연 1993). 그러나 일부 경험적 자료에서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아동의 평가와 성인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Anthony, 1974).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밝히고, 그 요인에 대해 아동들 개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건에 대한 아동의 나쁜 감정의 강도 그리고 그 사건의 경험 빈도를 함께 고려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사건에 대한 경험을 전체로 하여 강도만 측정하고, 빈도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문금순, 1992; 한미혜, 유안진, 1995).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스트레스 사건을 일상적 스트레스로 가정하고 그 사건에 대한 경험빈도 측정을 생략할 경우는 스트레스 측정에 약간의 한계점을 내포할 수도 있다. 즉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빈도가 높은 결과일 수도 있고, 빈도와 관계없이 스트레스 사건 자체에 대한 나쁜 감정의 강도가 높은 것일 수도 있다. 때문에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나쁜 감정의 강도만으로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것은 그 스트레스 사건 자체에 대한 나쁜 감정의 강도가 높은 것인지 누적된 빈도에 따른 결과인지가 불명확해 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건이 자신에게 주는 위협정도를 평가하게 하고 그 사건에 대한 경험빈도를 따로 측정하여 스트레스를 분석할 경우, 어떠한 사건이 아동에게 스트레스가 되는지를 알 수 있고 아울러 아동들은 어떤 사건을 아동이 많이 경험하는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훨씬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 이론에서 생활상의 주요 위기 사건은 일상적 혼란과 상호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의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일상적인 혼란과 생활상의 큰 사건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그러나 국내의 기존 연구는 주로 일상적 사건만을 다루고 있다(문금순, 1992, 최창호, 1992). 넷째, 아동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한 연구도 조사의 어려움 때문에 그 대부분이 국민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최창호, 1993; 한미혜, 유안진, 1995). 저학년 아동까지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켜 그들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스트레스의 발달

경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학년에 따라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사건 유형과 그 경험 빈도를 밝힘으로써 아동의 발달과정과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가지고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스트레스 사건 유형을 밝히고,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아동의 경험 빈도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아동의 발달단계, 연령, 성, 가정환경 등에 따라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개인적 요소인 아동의 학년, 성별과 환경적 요소인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변인으로 구분하고, 이에 의거하여 아동의 스트레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아동들의 감정 강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학년, 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감정 강도의 차이가 있는가?

2)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는 어떠한가, 그리고 학년, 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건 경험 빈도는 차이가 있는가?

3) 아동의 학년, 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아동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정의

본 연구문제에서 규명될 변인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스트레스 사건(stressor)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원인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빈번히 반복되는 일상적인 사건과 자주 일어나지 않는 생활상의 주요 사건을 모두 의미한다.

2) 스트레스(stress)

개인과 환경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적 관계, 즉 스트레스 사건을 직면했을 때 아동이 느끼는 심리적인 어려움의 정도를 스트레스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감정 강도와 사건의 경험빈도를 곱한 값을 스트레스라 한다.

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과 부의 직업과 가정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기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일상생활에서 개인에게 가해지는 요구와 그 요구에 대응하는 심리적 반응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인간은 누구나 모든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 연구에 있어서 개척자인 Selye는 스트레스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제외시킬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아동들도 일상 생활상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데,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심리적 발달단계에 있고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그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데 성인과 차이가 있다. 아동의 생활상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속에서 생긴다. Blom, Cheney, Snoddy(1982)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그 원인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아동이 경험하는 85가지 스트레스 사건 중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67)가 정신적 경험(10가지), 건강·외모(5가지), 물리적 환경(3종)에 비교하면 대단히 많다고 제시하고 있다. 어린 아동의 대인관계는 부모와 가족이다. 부모의 불화, 이혼, 가족의 사망 등의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심한 경우는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

킨다. 아동이 성장해 가면 사람과의 교제범위가 넓어지고 스트레스의 근원도 마찬가지로 많아진다. 대개 6세쯤 되어 아동들의 환경이 이웃과 학교를 포함하게 되면 아동의 스트레스는 동료와 교사, 가족 이외의 성인이 관련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에 부가되어 아동들이 신체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라는 것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급에서 제일 키가 작은 남아 혹은 제일 키가 큰 여아와 같이 보통의 발육상태에 비해 양극단이라는 사실은 스트레스(stressor)가 되는 것이다. 이 예에서는 상호작용의 영향이라는 것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 학급에서 키가 제일 작다는 것은 그 자체도 스트레스가 되지만 동료들에게 놀림을 받으면 더욱 스트레스가 증대하게 된다. 스트레스의 근원으로서 개인의 정신적 경험에서 생기는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일, 개인에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 목표의 완전한 달성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가정, 학교, 이웃, 광범위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게 된다.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Moore(1975)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즉 집단에서의 소외, 대화상대 부족과 같은 날마다의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일상적 스트레스, 배변 훈련, 국교 입학, 사춘기 경험 같은 발달적 과업을 성취하면서 겪는 발달적 스트레스, 부모의 이혼, 동생 출생과 같은 개인의 독특한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생활위기사건으로 분류하였다. Lazarus & Cohen(1977)은 외부적 혹은 환경적 스트레스 유형과 내부적 혹은 개인적 스트레스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부적 스트레스는 Moore의 일상적 스트레스, 생활위기사건과 유사하지만, 내부적 스트레스는 외부 세계에 대한 개인의 지각 경향성으로서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포함한다. 내부적 스트레스의 유형으로는 자극과부하 혹은 자극과부족이 있다. 주어진 시간내 수행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아동은 결과적으로 자극과부하 상태에 있는 것이고, 반대로 충분한 자극이 없는 아동은 권태와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 이들은 자극과부족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다른 내부적 스트레스로서 학습된 무기

력이 있다. 아동이 상황을 통제하는데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게되고 이때 스트레스는 최대가 되는 것이다.

2. 아동의 연령, 성과 스트레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의 스트레스 지각에는 연령과 대체로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Helms, 1985; Hoesch, 1983). 아동의 연령증가와 함께 아동의 인지능력이 발달하며,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환경적 압력이 증가한다. 따라서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스트레스의 성차를 살펴 본 연구들은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면 소녀가 소년보다 스트레스 사건을 더 심각하게 지각한다고 제시하고 있다(Yamamoto, 1979; Brown, et al., 198; 문금순, 1992). 이것을 Brown은 사회가 소녀의 허약함 그리고 감정적인 반응에 허용적이기 때문에 소년과 소녀가 스트레스 사건을 유사하게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각을 다르게 보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사건 유형에 따라 여아와 남아가 다르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연구가 있다.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최창호(1993)의 연구에서 학교압력과 부모압력에 따른 스트레스를 남아가 더 높게 지각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교 4, 5년생과 중학교 1, 2년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사한 Dunn(1965)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자신감 결여, 여학생은 일반적인 학교불안과 상관이 있으며, 국교 4, 5학년 소녀집단은 신체적 문제와 스트레스간의 상관이 높고, 국교 4, 5학년 남아집단은 다른집단에 비해 특히 시험불안과 스트레스간에 높은 상관이 있다고 밝혔다.

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스트레스

스트레스 사건의 효과는 개인의 특성 뿐 아니라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 가정적 환경에 의해 달라진다(Sula, 1973).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독특한 하위문화는 아동들에게 다른 스

트레스를 경험하게 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아동이 다른 집단의 아동보다 더 많은 생활변화와 스트레스 사건을 직면하며 아울러 스트레스 사건의 부정적 효과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Chander, Million, Shernis(1985)는 펜실바니아에 있는 5세부터 14세의 아동이 있는 부모 227명을 대상으로 아동 생활사건목록을 우편으로 수집했다. 아동의 35%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38%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머지 27%는 중류가정의 아동이었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내 가정의 아동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집단내 가정의 아동과 비교했을 때 높은 스트레스 발생률을 보고 하고 있다. Gad 와 Johnson(1980)은 12세-14세 아동의 흑인, 백인 167명을 대상으로 생활변화, 건강상태지표, 적응간의 관계를 평가했다. 결과는 저소득층의 청소년은 인종을 무시하고 높은 수준의 부정적 생활변화를 경험했다. 즉 흑인 청소년이 백인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지만 그 차이는 두 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산시내에 소재한 3개 국민학교에서 무작위추출된 2, 3, 4, 5학년 남녀 아동 417명이 연구대상이 되었다. 아동기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대다수 아동 후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초기까지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스트레스의 발달 경향을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트레스 사건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아동들을 면접하여 예비조사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변 인	분 류	빈 도(%)
학 년	2학년	80 (19.2)
	3학년	117 (28.1)
	4학년	111 (26.6)
	5학년	109 (26.1)
성 별	남	214 (51.3)
	여	203 (48.7)
父 교육수준	중졸이하	52 (12.5)
	고졸	223 (51.1)
	전문대졸	53 (12.7)
	대졸이상	80 (19.2)
	아버제	3 (0.7)
	무응답	16 (3.8)
母 교육수준	중졸이하	100 (24.0)
	고졸	214 (51.3)
	전문대졸	29 (6.9)
	대졸이상	58 (13.9)
	무응답	16 (3.8)
父 직업	무직	8 (1.9)
	기능직, 서비스직	230 (55.2)
	회사원·공무원	131 (31.4)
	전문직	29 (6.9)
	부부제	3 (0.7)
	무응답	16 (3.8)
母 직업	무직	241 (57.8)
	기능직, 서비스직	109 (26.1)
	회사원·공무원	33 (7.9)
	전문직	18 (4.3)
	무응답	16 (3.8)
소득수준	50~100만원	126 (30.2)
	101~150만원	128 (30.7)
	151~250만원	110 (26.4)
	250만원이상	37 (8.8)
	무응답	16 (3.8)

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은 조사대상이 되는 연령대의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척도를 구성하기 위한 스트레스적 사건을 아동으로 부터 직접 얻어내기 위해서이다. 예비조사에서 아동에게 스트레스적 상황이

되는 사건 42가지를 얻었다. 내용이 중복되는 사건을 제외한 35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조사에서 시행한 척도의 신뢰도계수 Cronabach α 는 .87이었다.

본 척도에서는 35가지 스트레스 사건을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하나는 사건에 대해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는지를 답하게 하여 나쁜 감정의 강도(1: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측정하도록 하였고, 다른 하나는 지난 1년동안 아동이 경험한 사건의 빈도(1: 없다, 5: 항상)를 리커트식 5점척도로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척도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나쁜 감정의 강도를 알 수 있고, 둘째는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를 밝힐 수 있다. 셋째는 아동이 경험한 스트레스다. 사건의 경험 빈도와 사건에 대한 감정의 강도를 곱하면 사건에 대해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스트레스=사건에 대한 감정 강도 \times 사건의 경험 빈도)를 측정할 수 있다. 아동 개인이 경험한 스트레스 점수는 35점에서 875점까지의 분포를 가진다.

2)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가정의 수입을 묻는 어머니용 질문지로 조사하였다. 부모의 교육(1: 중졸이하, 4: 대졸이상)과 부의 직업(1: 무직, 4: 전문직) 가정의 소득수준(1: 100만원, 4: 250만원 이상)으로 사회경제적지위 점수를 산출한 결과 4점에서 16점까지의 점수 분포가 나타났다. 여기서 7점 이하는 하층, 그 이상은 중상층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상층과 하층으로 구분한 것은 연구 대상자의 부모 교육수준과 직업, 소득 수준이 중 하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연구 절차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조사대상자들의 응답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1994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국민학교 전학년 아

동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면접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하였다. 2학년과 3학년은 교실에서 교사가 문항과 반응범주를 직접 읽어 주고 응답케 하였으며, 4학년과 5학년은 교사의 지도하에 집단으로 응답케 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한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하여 응답케 한 후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아동이 각 사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와 아동이 사건을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알기 위해 각 사건에 대한 나쁜 감정의 강도 평균과 경험 빈도 평균을 구하여 순위를 구하였다. 그리고 학년, 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감정 강도와 경험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 검정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아동이 경험한 스트레스는 학년, 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에 의해 일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분석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감정 강도

우선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아동이 얼마나 나쁘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아동들의 감정 강도를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아동이 느끼는 나쁜 감정의 강도 평균의 범위는 「부모의 이혼」항목의 4.53에서 「집에 혼자 있다」는 항목의 2.00까지의 범위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 「조부모의 병환, 사망」, 「부모의 병환」, 「부모의 부부싸움」 등의 사건이 아동의 나쁜 감정평가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사건들인 반면 부모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든지 집에 혼자 있다는 등의 사건은 나쁜

감정 평가에서 하위수준에 해당하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자신의 문제보다는 가정환경 즉 가정의 위기 사건을 더 나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아동에 의해 보고된 주 스트레스 사건이 가족해체라는 결과를 제시한 Colton(198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아동 자신의 문제보다 가족들에게서 일어나는 위기사건이 아동에게 괴로운 사건으로 지각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부모가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동이 집에 홀로 있다는 사실보다 아동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안정된 가정분위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파괴, 가족해체 등 가정에서 발생하는 위기 사건은 아동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의 속성별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감정 강도를 측정하면, 우선 학년에 따른 사건에 대한 나쁜 감정의 강도 평가는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학년 차가 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 수록 상황에 대한 인지가 명확해지고, 사건이 주는 위협을 더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년 집단간 차를 살펴보면 「좋은 성적 강요」, 「학원, 과외 강요」, 「집안규칙 강요」 사건은 2, 3, 4학년 집단과 5학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 사건이다. 아동들은 5학년이 되면 「고학년이 된 아동」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의 생활을 꾸러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고학년이 된 아동들은 뭔가를 열심히 하려는 향상의욕이 자각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동들은 자신의 개성과 다양한 흥미·관심을 존중받고 싶어 한다(加藤隆藤, 1992). 이러한 5학년의 심리가 주위의 강압에 거부하려는 경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한다. 이 때문에 5학년이 되면 강요당하는 것은 아주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건에 대한 감정의 강도 평가 차이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편애」, 「선생님과 사이가 나쁨」, 「선생님의 편애」, 「가장 친한 친구와의 싸움」 등 주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남아보다 여아가 유의하게 나쁘게 평가하였다. 「집에 홀로 있

<표 2>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감정 강도 평균과 순위
N=417(SD)

순위	사 건	평 균	표준편차
1	부모의 이혼	4.53	0.74
2	조부모의 병환, 사망	4.22	0.99
3	부모의 병환	4.08	1.05
4	부모의 부부싸움	3.98	1.08
5	부모의 애정철회	3.83	1.24
6	애장품 분실	3.75	0.89
7	다른 아이의 괴롭힘	3.65	1.00
8	자신감 결여	3.65	1.34
9	학교성적이 나쁨	3.64	1.18
10	친구들로부터 소외	3.62	1.05
11	가장 친한 친구와 싸움	3.53	1.23
12	선생님과 사이가 나쁨	3.48	1.27
13	나의 병	3.34	1.53
14	전학	3.18	1.40
15	집안의 규칙 강요	3.17	1.28
16	외모불만	3.16	1.43
17	다른 아이와 싸움	3.11	1.05
18	부모님의 편애	3.07	1.32
19	숙제 많음	3.06	1.26
20	학교에서 벌	3.04	1.86
21	부모님의 간섭	2.94	1.26
22	하지 않은 일로 꾸중	2.87	1.05
23	운동을 잘하지 못함	2.86	1.30
24	부모님으로부터 벌	2.86	1.31
25	형제자매와 싸움	2.85	1.10
26	학원, 과외 강요	2.84	1.25
27	선생님의 편애	2.77	1.39
28	좋은 성적을 강요	2.75	1.41
29	시험	2.72	1.52
30	부모님과과의 시간불충분	2.62	1.23
31	용돈이 부족	2.31	1.26
32	이사	2.27	1.36
33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함	2.23	1.10
34	집안 일을 도움	2.12	1.01
35	집에 혼자	2.00	1.26
	전체평균	3.14	1.13

다, 「나의 병」, 「좋은 성적 강요」, 「시험」, 「학교에서 벌」 등도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나쁘게 평가한 사건들이다. 이것은 여아가 남아보다 감성적이어

서 대인관계나 통제·벌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사건에 대한 나쁜감정의
강도 평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이혼」, 「부

〈표 3〉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감정 강도의 학년에 따른 평균차

N=417(SD)

사 건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F 값
학교성적이 나쁨	3.17(1.27)a	3.70(1.21)b	3.68(1.15)b	3.88(1.01)b	5.99**
집안일	2.50(0.95)a	2.10(1.05)b	1.98(1.11)b	1.99(0.83)b	5.19*
학원 과외강요	2.50(1.14)a	2.75(1.24)a	2.81(1.32)a	3.21(1.17)b	5.58**
부모님과 시간부족	2.55(1.16)	2.71(1.33)	2.68(1.33)	2.51(1.15)	0.70
형제자매와 싸움	2.65(1.09)	2.90(1.16)	2.79(1.10)	3.00(1.04)	1.84
외모불만	2.57(1.23)a	3.23(1.44)b	3.33(1.44)b	3.33(1.43)b	5.82**
나의 병	2.87(1.56)a	3.41(1.52)b	3.63(1.50)b	3.22(1.47)b	3.99*
나의 애장품 분실	3.32(0.88)a	3.63(0.77)b	3.84(1.05)c	4.06(0.67)d	12.57**
집안규칙 강요	2.87(1.19)a	2.93(1.23)a	3.26(1.35)b	3.40(1.18)c	4.96*
집에 홀로	2.17(1.16)	2.03(1.25)	1.92(1.29)	1.92(1.29)	0.82
부모의 편애	2.80(1.29)a	2.98(1.22)	3.22(1.48)b	3.22(1.36)b	2.27
숙제가 많음	2.65(1.18)a	3.15(1.26)b	3.07(1.28)b	3.25(1.23)b	4.02*
조부모 병, 사망	3.42(1.02)a	4.32(0.87)b	4.34(0.78)bc	4.54(0.99)c	25.76**
선생님과 사이 나쁨	2.82(1.35)a	3.47(1.20)b	3.46(1.34)b	3.99(0.96)c	14.15**
하지않은 일로 꾸지람	2.70(0.90)	2.89(1.10)	2.94(1.15)	2.87(1.00)	0.90
이사	2.43(1.44)a	2.44(1.43)a	2.50(1.40)a	1.73(1.03)b	8.07**
가장 친한친구와 싸움	3.02(1.30)a	3.52(1.20)b	3.51(1.21)b	3.90(1.12)c	8.29**
운동 못함	2.45(1.10)a	3.03(1.35)b	3.11(1.35)b	3.71(1.26)c	5.39*
다른아이의 괴롭힘	3.25(1.04)a	3.05(1.03)b	3.71(0.99)b	4.05(0.78)c	11.72**
원하는 옷 입지 못함	2.45(1.00)	2.19(1.17)	2.18(1.15)	2.15(1.02)	1.32
부모님의 이혼	3.92(0.96)a	4.56(0.58)b	4.66(0.69)bc	4.79(0.44)c	29.02**
친구에게 제외당함	3.28(1.19)a	3.56(0.96)b	3.65(1.08)b	3.89(0.08)c	5.57**
부모로 부터 벌	2.75(1.26)	3.07(1.34)	2.71(1.31)	2.85(1.29)	1.73
자신감 결여	2.87(1.39)a	3.55(1.27)b	3.82(1.28)b	4.12(1.15)c	16.00**
학교에서 벌	2.80(1.15)	3.23(1.24)	3.00(1.21)	3.06(1.09)	2.17
좋은 성적 강요	2.50(1.31)a	2.65(1.37)a	2.44(1.40)a	3.34(1.37)b	9.86**
전학	2.67(1.34)a	3.48(1.30)b	3.22(1.46)c	3.16(1.39)c	5.56*
용돈 불충분	2.27(1.12)	2.31(1.31)	2.19(1.34)	2.42(1.24)	0.58
다른아이와 싸움	2.93(1.08)	3.12(1.03)	3.06(1.08)	3.27(0.98)	1.83
부모님의 부부싸움	3.37(1.07)a	3.97(0.99)b	4.09(1.12)b	4.34(0.92)c	14.12**
선생님의 편애	2.62(1.30)	2.65(1.40)	2.85(1.44)	2.89(1.37)	0.95
부모님의 애정철회	3.25(1.12)a	3.73(1.21)b	3.96(1.35)b	4.22(1.00)c	10.78**
시험	2.25(1.24)a	2.68(1.56)b	2.78(1.58)b	3.01(1.51)b	4.13*
부모님의 병	3.45(1.25)a	3.99(1.10)b	4.28(0.78)c	4.44(0.82)c	17.61**
부모님의 간섭	2.90(1.09)	3.07(1.21)	2.96(1.41)	3.18(1.21)	2.17

* P < .05, ** P < .005, *** P < .000

〈표 4〉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감정 강도의 성별, 사회경제적지위별 평균차

N=417(SD)

사 건	성 별			사회경제적 지위		
	여	남	t 값	하층	중상류층	t값
학교성적이 나쁨	3.59(1.15)	3.69(1.21)	0.87	3.47(1.27)	3.78(1.12)	2.42**
집안일	2.05(0.94)	2.18(1.08)	1.34	2.09(0.99)	2.15(1.04)	0.57
학원 과외강요	2.72(1.21)	2.94(1.28)	1.84*	2.72(1.24)	2.86(1.26)	1.06
부모님과 시간부족	2.63(1.10)	2.61(1.35)	0.11	2.57(1.16)	2.72(1.22)	1.14
형제자매와 싸움	2.97(1.01)	2.74(1.17)	2.11*	2.90(1.01)	2.79(1.15)	0.96
외모불만	3.19(1.40)	3.12(1.45)	0.54	3.03(1.44)	3.29(1.41)	2.05*
나의 병	3.58(1.51)	3.12(1.51)	3.04**	3.28(1.54)	3.62(1.49)	2.45*
나의 애장품 분실	3.62(0.88)	3.85(0.88)	2.69**	3.73(0.91)	3.70(0.90)	0.29
집안규칙 강요	3.13(1.23)	3.19(1.31)	0.47	3.28(1.22)	3.04(1.33)	1.77*
집에 홀로	2.15(1.23)	1.86(1.27)	2.39*	2.05(1.23)	1.98(1.23)	0.58
부모의 편애	3.22(1.22)	2.93(1.39)	2.22*	3.05(1.25)	3.09(1.35)	0.27
숙제가 많음	3.07(1.18)	3.06(1.33)	0.10	2.96(1.22)	3.08(1.27)	0.80
조부모 병, 사망	4.21(0.96)	4.21(1.03)	0.02	4.06(1.04)	4.26(0.96)	1.83*
선생님과 사이 나쁨	3.69(1.20)	3.27(1.30)	3.41***	3.37(1.37)	3.44(1.21)	0.49
하지않은 일로 꾸지람	2.88(1.00)	2.84(1.10)	0.40	2.82(1.07)	2.86(1.05)	0.35
이사	2.11(1.26)	2.41(2.41)	2.24*	2.31(1.37)	2.36(1.43)	0.34
가장 친한친구와 싸움	3.63(1.17)	3.42(1.27)	1.75*	3.44(1.21)	3.55(1.23)	0.84
운동 잘 못함	2.75(1.16)	2.95(1.41)	1.56	2.71(1.27)	3.03(1.32)	2.26*
다른아이의 괴롭힘	3.66(0.95)	3.64(1.05)	0.24	3.64(0.99)	3.57(1.05)	0.66
원하는 옷 입지 못함	2.32(1.03)	2.14(1.16)	1.58	2.22(1.08)	2.23(1.12)	0.05
부모님의 이혼	4.51(0.78)	4.54(0.68)	0.48	4.30(0.90)	4.64(0.58)	4.18***
친구에게 제외당함	3.58(0.97)	3.65(1.12)	0.80	3.54(1.05)	3.66(1.04)	1.03
부모로 부터 벌	2.93(1.19)	2.78(1.41)	1.17	2.80(1.27)	2.96(1.36)	1.03
자신감 결여	3.67(1.25)	3.62(1.42)	0.41	3.52(1.41)	3.65(1.29)	0.90
학교에서 벌	3.22(1.06)	2.87(1.27)	3.02**	2.93(1.15)	3.14(1.23)	1.63
좋은 성적 강요	3.00(1.35)	2.51(1.44)	3.63***	2.84(1.35)	2.46(1.40)	2.04*
전학	3.06(1.34)	3.28(1.44)	1.61	3.20(1.38)	3.13(1.43)	0.42
용돈불충분	2.18(1.12)	2.42(1.38)	2.00*	2.34(1.24)	2.28(1.30)	0.40
다른아이와 싸움	3.17(0.94)	3.05(1.14)	1.28	3.01(1.06)	3.14(1.05)	1.15
부모님의 부부싸움	3.98(1.07)	3.99(1.09)	0.14	3.83(1.13)	4.04(1.00)	1.87*
선생님의 편애	3.16(1.25)	2.39(1.41)	5.85**	2.61(1.34)	2.86(1.45)	1.57
부모님의 애정철회	3.88(1.14)	3.78(1.33)	0.83	3.71(1.29)	3.84(1.24)	0.94
시험	2.85(1.43)	2.57(1.59)	1.87*	2.73(1.49)	2.68(1.53)	0.31
부모님의 병	4.00(1.13)	4.15(0.95)	1.41	3.95(1.16)	4.14(0.98)	1.61
부모님의 간섭	2.96(1.21)	2.91(1.32)	0.40	2.91(1.27)	2.99(1.25)	0.59

* P < .05, ** P < .005, *** P < .000

모의 부부 싸움», 「조부모 병 혹은 사망», 「운동 못 함», 「외모 불만», 「나의 병», 「학업 성적 나쁨」을

중상류 가정의 아동이 하류 가정의 아동보다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집안 규칙 강요», 「좋은 성적

강요」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이 더 나쁘게 지각한 사건이다.

2.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아동이 1년 동안 스트레스 사건을 얼마나 경험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를 구하였다. 아동들이 1년에 1번 이상 경험하는 사건수의 평균은 24.64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이 평가한 자주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은 「시험」이었고($m=3.08$), 「형제자매와의 싸움」, 「다른 아이의 괴롭힘」, 「집에 혼자 있음」, 「나의 병」 등의 사건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형제자매와의 싸움이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이라는 Roberts (1988)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이 시험이라는 것은 한국의 교육적 환경에 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주 경험하는 사건이 나쁜 감정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시험, 형제자매와의 싸움, 집에 혼자 있다 등 빈도가 높은 사건은 나쁜 감정의 강도평가에서 29위, 25위, 35위 였다. 이러한 사실은 사건에 대한 단순한 경험 빈도만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차를 고찰하면 <표 6>과 같다. 「학교성적 나쁨」, 「숙제가 많음」, 「좋은 성적 강요」, 「시험」, 「학교에서 벌」, 「선생님의 편애」 등 학업·학교와 관련한 사건이 고학년 아동에게 유의하게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다. 「외모불만」도 고학년의 아동이 많이 경험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년이 되면서 학교와 부모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구체화되고 학업성적에 집착하게 되는 시기인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부부싸움」, 「부모의 이혼」, 「집안규칙 강요」는 저학년 아동이 유의하게 많이 경험한 사건인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부관계의 적응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성에 따른 사건의 경험 빈도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경험 빈도 차이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성

<표 5> 스트레스사건의 빈도순위와 빈도평균, 강도 순위
N=417(SD)

순위	사 건	평 균	표 준 편 차	강 도 순 위
1	시험	3.09	1.36	29
2	형제자매와의 싸움	3.05	1.20	25
3	다른 아이의 괴롭힘	2.87	1.11	7
4	집에 혼자 있음	2.82	1.04	35
5	나의 병	2.74	0.89	13
6	하지 않은 일로 꾸지람	2.57	1.02	22
7	부모로부터 벌	2.56	0.95	24
8	학교에서 벌	2.53	0.93	20
9	부모와의 시간불충분	2.52	1.27	30
10	학교성적 나쁨	2.49	1.05	9
11	운동을 잘못함	2.48	1.12	23
12	다른 아이와 싸움	2.43	0.79	17
13	부모님의 간섭	2.41	1.05	21
14	집안일 돕기	2.40	1.11	34
15	좋은 성적을 강요	2.39	1.26	28
16	외모불만	2.35	1.32	16
17	부모의 병	2.28	0.79	3
18	원하는 옷을 입지 못함	2.25	1.70	33
19	숙제를 다 못함	2.22	0.97	9
20	가장 친한 친구와 싸움	2.20	0.85	11
21	선생님의 편애	2.15	1.17	7
22	이사	2.06	0.82	32
23	자신감 결여	2.01	1.12	8
24	학원 과외 강요	1.99	1.10	26
25	친구들에게 소외당함	1.98	0.98	10
26	조부모병환, 사망	1.96	0.75	2
27	용돈부족	1.95	1.09	31
28	소장품분실	1.90	0.96	6
29	부모애정철회	1.76	1.03	5
30	선생님과의 관계악화	1.75	0.90	12
31	부모님의 부부싸움	1.75	0.73	4
32	집안규칙	1.66	0.89	15
33	부모의 편애	1.64	0.93	18
34	전학	1.38	0.62	14
35	부모의 이혼	1.13	0.53	1
	전체평균	2.22	0.95	

적이 나쁨」, 「숙제가 많음」 등 학업에 관련한 문제와 「학원 과외 강요」, 「좋은 성적 강요」, 「학교에서

〈표 6〉 스트레스 사건 경험 빈도의 학년에 따른 평균 차

N=417(SD)

사 건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F 값
학교성적이 나쁨	2.32(0.96)a	2.47(1.13)	2.44(1.08)a	2.69(0.93)b	2.20*
집안일	2.50(1.10)	2.40(1.11)	2.35(1.03)	2.37(0.96)	0.33
학원 과외강요	2.07(0.96)	2.03(1.15)	1.95(0.11)	1.89(0.97)	0.50
부모님과 시간부족	2.42(1.23)	2.58(1.25)	2.32(1.25)a	2.73(1.29)b	2.20*
형제자매와 싸움	3.15(0.94)	2.87(1.24)	2.99(1.25)	3.22(1.26)	1.78
외모불만	2.30(1.19)a	2.13(1.29)a	2.16(1.24)a	2.80(1.40)b	6.40***
나의 병	2.30(0.68)a	2.77(0.95)b	2.83(0.86)b	2.90(0.83)b	9.05***
나의 애장품 분실	1.87(1.01)	1.84(1.00)	1.89(0.91)	1.98(0.94)	0.39
집안규칙 강요	2.07(0.93)a	1.63(0.92)b	1.55(0.96)b	1.50(0.63)b	7.75***
집에 홀로	2.65(0.91)	2.81(1.09)	2.81(1.07)	2.94(1.01)	1.25
부모의 편애	1.82(1.02)	1.64(0.89)	1.54(0.89)	1.59(0.91)	1.57
숙제가 많음	2.03(0.88)a	2.05(0.93)a	2.34(0.98)b	2.40(1.01)b	4.21**
조부모 병, 사망	2.10(0.89)	1.90(0.73)	1.81(0.63)	2.05(0.71)	1.26
선생님과 사이 나쁨	1.70(0.90)	1.75(0.88)	1.76(0.94)	1.77(0.86)	0.13
하지않은 일로 꾸지람	2.73(1.14)	2.62(1.02)	2.35(1.02)	2.62(0.85)	2.54
이사	1.95(0.92)	2.16(0.76)	2.20(0.83)	1.99(0.75)	1.25
가장 친한친구와 싸움	2.35(0.85)	2.18(0.88)	2.14(0.90)	2.16(0.73)	1.05
운동못함	2.55(1.10)	2.57(1.27)	2.36(0.97)	2.44(1.10)	0.81
다른아이의 괴롭힘	2.60(1.00)a	2.76(1.04)ab	2.97(1.18)bc	3.07(1.12)c	3.52*
원하는 옷 입지 못함	2.25(1.16)	2.39(1.07)	2.12(1.07)	2.21(0.96)	1.25
부모님의 이혼	1.32(0.75)a	1.11(0.46)b	1.05(0.42)b	1.06(0.34)b	5.57***
친구에게 제외당함	2.00(1.07)	1.85(0.93)	2.00(1.00)	2.05(0.93)	0.89
부모로 부터 벌	2.67(0.96)	2.47(0.94)	2.45(0.86)	2.65(1.00)	1.44
자신감 결여	2.12(1.03)	1.98(1.23)	1.97(1.06)	2.02(1.16)	0.33
학교에서 벌	2.40(1.00)a	2.47(0.99)a	2.48(0.80)a	2.73(0.80)b	2.52*
좋은 성적 강요	2.27(1.25)a	2.29(1.29)a	2.30(1.17)a	2.65(1.28)b	2.17*
전학	1.45(0.70)	1.30(0.63)	1.38(0.55)	1.37(0.58)	0.94
용돈불충분	1.95(1.21)	1.91(1.09)	1.81(1.02)	2.11(1.06)	1.44
다른아이와 싸움	2.60(0.83)	2.43(0.77)	2.34(0.81)	2.40(0.73)	1.74
부모님의 부부싸움	1.80(0.51)a	1.90(0.89)a	1.57(0.68)b	1.70(0.71)b	4.06**
선생님의 편애	2.10(1.18)a	1.83(0.95)a	2.14(1.23)a	2.51(1.20)b	6.60***
부모님의 애정철회	1.97(1.04)a	1.71(1.03)b	1.78(1.12)	1.63(0.91)b	1.83
시험	2.22(0.96)a	2.92(1.26)b	3.15(1.36)b	3.83(1.30)c	26.46***
부모님의 병	2.40(0.73)	2.16(0.75)	2.22(0.90)	2.37(0.71)	2.19
부모님의 간섭	2.37(0.99)	2.47(1.15)a	2.17(1.16)b	2.60(1.06)a	3.02*

* P < .05, ** P < .005, *** P < .001

벌», 「부모로 부터 벌», 「부모의 간섭», 「하지않은 일로 꾸지람」 등 통제와 강요에 관련된 사건은 남아에게서 유의하게 많이 발생했다. 「선생님과 사이가 나

쁨», 「집에 홀로 있음», 「부모와 시간 부족」 사건도 남아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여아에게 있어서는 「외모 불만», 「자신의 병», 「운동못함», 「부모의 애

〈표 7〉 스트레스 사건 발생빈도의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별 평균차

N=417(SD)

사 건	성 별			계 층 별		
	여	남	t 값	하층	중상류층	t값
학교성적이 나쁨	2.39(0.99)	2.58(1.08)	1.91*	2.60(1.05)	2.31(0.99)	2.70**
집안일	2.27(0.99)	2.52(1.09)	2.47**	2.42(0.96)	2.32(1.05)	1.00
학원 과외강요	1.83(0.98)	2.13(1.18)	2.80***	1.91(1.07)	2.00(1.08)	0.78
부부님과 시간부족	2.41(1.20)	2.63(1.32)	1.75*	2.55(1.26)	2.44(1.27)	0.81
형제자매와 싸움	3.14(1.15)	2.95(1.24)	1.61	3.04(1.17)	3.00(1.16)	0.39
외도불만	2.53(1.32)	2.18(1.29)	2.76***	2.21(1.24)	2.32(1.28)	0.82
나의 병	2.88(0.87)	2.59(0.86)	3.34***	2.65(0.90)	2.74(0.84)	0.95
나의 애장품 분실	1.91(0.86)	1.88(1.05)	0.35	1.78(0.85)	1.91(0.98)	1.26
집안규칙 강요	1.62(0.82)	1.70(0.95)	0.97	1.74(0.90)	1.66(0.90)	0.81
집에 홀로	2.68(0.99)	2.94(1.06)	2.48**	2.84(1.01)	2.77(1.07)	0.65
부모의 편애	1.73(0.98)	1.54(0.87)	2.14*	1.65(0.88)	1.60(0.92)	0.51
숙제가 많음	1.93(0.81)	2.49(1.03)	6.06***	2.35(1.05)	1.96(0.82)	3.84***
조부모 병, 사망	1.96(0.64)	1.95(0.83)	0.10	1.95(0.70)	1.98(0.80)	0.40
선생님과 사이 나쁨	1.62(0.83)	1.87(0.93)	2.97***	1.79(1.93)	1.61(0.79)	1.92*
하지않은 일로 꾸지람	2.42(0.95)	2.70(1.04)	2.76**	2.71(1.90)	2.43(1.03)	2.64*
이사	2.11(0.87)	2.00(0.76)	1.47	2.03(0.86)	1.98(0.77)	0.54
가장 친한친구와 싸움	2.29(0.86)	2.12(0.83)	2.09*	2.23(0.78)	2.16(0.89)	0.74
운동못함	2.62(1.05)	2.34(1.03)	2.61**	2.43(1.13)	2.54(1.08)	0.88
다른아이의 괴롭힘	2.90(1.06)	2.84(1.14)	0.56	2.79(1.08)	2.77(1.09)	0.20
원하는 옷 입지 못함	2.24(0.98)	2.26(1.14)	0.20	2.24(1.04)	2.22(1.07)	0.17
부모님의 이혼	1.16(0.55)	1.08(0.46)	1.48	1.22(0.65)	1.03(0.20)	3.64***
친구에게 제외당함	1.99(0.98)	1.96(0.97)	0.29	2.08(1.06)	1.85(0.85)	2.27*
부모로 부터 벌	2.32(0.84)	2.77(0.98)	5.01***	2.47(0.92)	2.50(0.92)	0.30
자신감 결여	1.99(1.13)	2.04(1.12)	0.51	2.19(1.14)	1.79(1.05)	3.38***
학교에서 벌	2.16(0.80)	2.88(0.89)	8.63***	2.58(0.98)	2.40(0.88)	1.84*
좋은 성적 강요	2.23(1.17)	2.53(1.32)	2.42**	2.59(1.25)	2.14(1.19)	3.41***
전학	1.41(0.68)	1.33(0.55)	1.38	1.38(0.69)	1.33(0.54)	0.70
용돈불충분	1.86(0.96)	2.03(1.20)	1.60	1.91(0.92)	1.94(1.21)	0.30
다른아이와 싸움	2.44(0.69)	2.42(0.87)	0.20	2.40(0.82)	2.47(0.75)	0.85
부모님의 부부싸움	1.74(0.70)	1.74(0.77)	0.05	1.84(0.71)	1.70(0.75)	1.72*
선생님의 편애	2.18(1.10)	2.10(1.23)	0.70	2.07(1.13)	2.16(1.20)	0.69
부모님의 애정철회	1.88(1.02)	1.64(1.03)	2.44**	1.94(1.12)	1.62(0.92)	2.87***
시험	3.03(1.26)	3.13(1.45)	0.72	3.10(1.31)	3.01(1.39)	0.63
부모님의 병	2.37(0.80)	2.19(0.76)	2.40**	2.37(0.81)	2.13(0.74)	2.80***
부모님의 간섭	2.21(0.96)	2.59(1.21)	3.53***	2.47(1.11)	2.32(1.13)	1.24

* P < .05, ** P < .01, *** P < .001

정철회», 「부모의 편애」등의 사건이 더 많이 발생했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건의 발생빈도는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부부싸움», 「부모의 애정 철회», 「부모의 병», 「학업성적 나쁨», 「숙제 많음», 「좋은 성적 강요», 「하지않은 일로 꾸지람», 「자신감 결여», 「친구에게 제외당함」의 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더 많이 경험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감정의 강도 평가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들이 더 나쁘게 평가한 사건들이 많았지만, 반면 사건의 발생빈도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더 많이 경험한 사건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고, 아동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사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3. 아동의 스트레스

아동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아동의 감정 강도와 사건의 경험 빈도를 곱하여 얻어졌다. 이를 아동의 학년, 성, 사회경제적지위 등 아동 속성별로 평균 차를 보면 <표 8>과 같다.

우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는 고학년 아동이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Hoesch(1983), Maccoby(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스트레스 사건별로 학년 차를 분석한 결과 「시험», 「다른 아이의 괴롭힘», 「학교성적 나쁨», 「숙제 많음», 「좋은 성적 강요», 「외모불만», 「나의 병», 「부모의 병」이라는 사건에서 고학년의 아동이 유의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즉 「시험», 「성적이 나쁨», 「숙제 많음」 등 학업과 관련한 사건들과 「외모불만», 「나의 병」 등 신체·건강 문제에서 고학년의 아동들이 저학년 아동보다 유의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와 부모로부터 성적에 대한 압력이 더 받게 되며 학업에 대한 비중이 커지게 된다. 또한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에 많은 관심을

<표 8> 아동 스트레스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변 인	구 분(N)	평균(표준편차)	F, T	
학 년	2학년(80)	203.14(67.47)a	7.55***	
	3학년(117)	218.72(68.73)a		
	4학년(111)	238.08(64.66)		
	5학년(109)	248.73(51.87)b		
성	남 (214)	223.31(67.22)	1.09	
	여 (203)	231.02(62.27)		
	2학년	남	213.44(67.22)	.88
		여	192.83(67.81)	
	3학년	남	219.19(74.50)	.32
		여	218.24(61.44)	
	4학년	남	225.39(69.69)	3.50*
		여	250.78(58.15)	
	5학년	남	235.22(50.14)	3.27*
		여	262.23(53.95)	
사회경제적 지위	중상(208)	211.81(62.43)	4.79**	
	하 (192)	242.53(66.68)		

* P < .05, ** P < .005, *** P < .000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은 가정의 아동들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를 스트레스 사건별로 분석해 보면 「자신감 결여», 「친구들로부터 제외당함», 「부모로부터의 별», 「부모의 애정철회», 「좋은 성적을 강요», 「숙제 많음」 등의 사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유의하게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는 이 계층의 아동들이 부모들로부터 지지를 적게 받으므로 해서 원만한 부모자녀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업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어머니의 취업 비율이 높은 것도 아동의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성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없었지만, 4학년과 5학년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스트레스를 지각했다. 이는 아동 후기의 여아들이 스트레스를 더 지각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Yamamoto, 1979; 문금순, 1992)와 일치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스트레

스 사건의 유형별 점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성적이 나쁨」, 「학원 과외 강요」,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벌」, 「학교에서 벌」 사건에서 스트레스 점수가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외모불만」, 「나의 병」, 「운동 못함」, 「가장 친한 친구와의 싸움」, 「형제자매간의 싸움」 사건에서 여학생의 스트레스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들이 가족과 또래와 관련한 사건에서 남아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Pleimann(1989)의 연구 결과와 국고 4, 5학년 소녀들의 신체적 문제와 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Dunn(196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리고 신체적 활동이 많은 남아가 여아보다 통제를 더 받게 되고 이러한 것이 남아의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로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 아동이 가장 나쁘게 평가한 스트레스 사건은 가족들에게서 일어나는 위기사건이다.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부부싸움, 부모의 병, 조부모의 병 혹은 사망 등은 아동들이 가장 괴롭다고 지적한 사건이다. 둘째, 아동이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은 시험, 형제자매와의 싸움, 다른 아이의 괴롭힘, 집에 혼자 있음 등의 사건들이다. 셋째,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넷째, 4학년과 5학년 여아들이 남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다. 스트레스 사건별로는 외모불만, 나의 병, 운동 못함 등의 신체·건강 항목에서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와의 싸움, 형제자매간의 싸움 등 중요타인과의 관계에서 여학생의 스트레스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남학생은 학업성적, 학원 과외 강요 등 학업문제,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벌, 학교에서의 벌 등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 점수가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섯째, 가정의 사회경제학적 지위에 따른 아동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아동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들도

스트레스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스트레스로 지각하고 있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 스트레스도 증가한다. 연령과 성에 따라 경험하는 스트레스적 사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를 자기 평정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아동의 면접을 통해 얻어진 자료로 구성되었고,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질문지를 통해 아동 스트레스를 측정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즉 본 연구결과는 아동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왜곡없이 회상하는 능력, 자기 노출하는 능력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아동의 자기보고로 얻어진 것이었다. 둘째, 이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만을 주로 설명하고 있고 스트레스에 영향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적응문제 등을 밝히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기도 하지만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 스트레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국민학교 저학년을 포함해서 아동들이 겪는 스트레스 사건을 처음으로 조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척도를 구성하였고,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과 그에 대한 감정의 평가를 이원적으로 측정하였기에 보다 정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이 연구는 부모나 교사가 아동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자료가 되며 앞으로의 아동 스트레스 척도의 표준화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강성희, 이재연(1991).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스트레스 완충효과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13권, 2호.
- 2) 문금순(1992).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최창호(1993).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전

- 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한미혜, 유안진(1995).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 가정학회지, 제 33권, 4호.
 - 5) Anthony, E. J.(1974). *The Child in his family: Children at psychiatric risk*. N.Y.: John Wiley and Sons.
 - 6) Blom, Cheney & Snoddy(1986). *Stress in childhood*. Teacher's College Press, U.S.A.
 - 7) Brwon, L. J. P., Cowen, E. L., Hightower, A. D., & Lotyczewski, B.S.(1986). Demographic differences among children in judging and experiencing specific stressful life ev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 339-346.
 - 8) Chandler, L. A.(1981). The source of stress inventory. *Psychology in the School*, 18, 164-168.
 - 9) Chandler, L.A., Million, M. E., & Shermis, M. D. (1985). The incidence of stressful life events of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3, 743-746.
 - 10) Coddington, R.(1972).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s of children: A survey of 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6, 7-18.
 - 11) Colton, J.(1985). Childhood stress: Perceptions of children and professional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7(2), 155-173.
 - 12) Dunn, J. A.(1965). Stability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Test Anxiety Scale for Children across age and sex group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187.
 - 13) Elkind, D.(1981). *The h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Reading, MA: Addison-Wesley.
 - 14) Gad, M. T., & Johnson, J. H.(1980). Correlates of adolescent life stress as related to race, SES, and level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9, 13-16.
 - 15) Glaser, K. (1982).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Resolution on Student Stress. *Today's Education*, 71(3), 59.
 - 16) Helms, B. J.(1985). A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child stress to demographic, personality, family and school variable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6, 1562A.
 - 17) Hoesch, A. H.(1984). Stressful life events of children: Their incidence, magnitude and classification.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5, 462A.
 - 18) Honing, A. S.(1986). Stress and coping in Children (part 1). *Young Children*, 41(4), 50-63.
 - 19) Lazarus, R. S., & Choen, J. B.(1977).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N. Y.: Plenum Press.
 - 20) Lazarus & Folkman(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 N.Y.
 - 21) Lewis, C. E., Siegel, J. M., & Lewis, M. A.(1984). Feeling bad: Exploring sources of distress among pre-adolescent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4, 117-122.
 - 22) Monaghan, J., Robinson, J., & Dodge, J.(1979). The Children's life event inventor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3, 63-68.
 - 23) Moore, T.(1975). *Society, stress, and disease*, N. Y.: Oxford University Press.
 - 24) Rakow, L.(1987).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the literature dealing with helping children understand and cope with their stress*. South Bend: Indiana University.
 - 25) Roberts, L. R.(1989). Stressors, levels of stress, and self-care actions to reduce stress in preadolescent children. *Univ. of Alabama*.
 - 26) Sula, W(1973). *Children under stress*, Baltimore: Penguin Press.
 - 27) Yamamoto, K.(1979). Children's rating of the stressfulness of experiences. *Development Psychology*, 15, 581-582.
 - 28) 加藤隆勝(1992). 五學年の心理. 大日本圖書.